



心
實
愛
世
信
慈
度
攝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86. 10. 15. 등록번호 (서) 14-889 · 월간 · 비매품

東友會報

1992年(檀紀4325年)7月28日 第158號 [1]

哲正魯
在秀榮
鄭張金
同窓會
總學校大學東國

197-28
2층 관운동 구로구 서울특별시
3층 백상빌딩 3991~3
전화: 733-3992
FAX: 733-3992

012328-31-0525677
우편대체 번호 7500891
은행지로번호

한마음 한뜻 東國을 위하여



▲ 左로부터 崔相培의원, 李肯瑞의원, 李永烈의원, 黃明秀의원, 金榮壽의원, 鄭在哲의원, 朴熙富의원, 南平祐의원, 崔炳佑의원, 姜惠環의원등이며 慎順範의원
과 朴珪植의원은 뒤늦게 도착, 사진 촬영에서 빠졌다.

제54차 정기이사회 겸

國會議員 당선자 祝賀宴 盛了

여기 東國을 빛낸 동문들이 한 자리에 섰다. 술한 화재를 남긴 지난 14대 총선에서 지역 주민의 성원을 한 몸에 받아當選된 17명의 東國人.

이들로 하여 政治東國의 名聲은 더욱 더 높이 울렸고 이나라 정치를 이끌 역군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제54차 정기이사회 겸 국회의원당선자 축하연은 鄭在哲회장을 비롯한 모교 閔丙天총장과 13명의 국회의원동문, 그리고 150여 일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당선된 국회의원동문 개인마다 당선축하패를 수여한 이날 행사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모든 안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그 어느때보다 열띤 분위기를 보였다.

지난 13대 국회의원동문이 17명이었고 이번 14대 국회의원동문도 17명, 이것은 우리 국회 의원동문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선 의리와 신념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제는 政治東國의 자긍심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관련기사 3, 5면>

◇지면안내

- 1면 정기이사회 화보
- 3면 本會 기사
- 4면 東友會 탐방(東民會)
- 5면 이사회 상보
- 6면 동문동정
- 7면 未堂 徐廷柱동문 인터뷰
- 8면 모교소식
- 9면 나의 학창시절
- 10면 동동동

세계로 수출하는 마산명산

몽고간장·된장·고추장·식초·물엿

한국간장계의 원조(창업 서기 1905년)



경남문화재 자료 제82호



700년전 (몽고정) 우물의 유래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전 고려 충렬왕 원년(1274) 몽고군이 고려와 합세하여 여동연합군을 편성하고 일본을 정벌코자 합포(현 마산)에 주둔하면서 병사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거대한 우물을 깊이 깊어졌다. 이 우물이 몽고정(井, 경남문화재 자료 제82호)인 것이다.

이 몽고정은 가뭄과 홍수에도 물이 줄거나 늘지 않으며, 특히 이 우물은 칼슘(Ca) 함량이 풍부하여 양조공업에는 아주 더할 수 없는 최우량 수질인 것입니다.

국내 양조공업에는 아주 이상적인 도시, 전국에서 물좋고 기후 좋기로 이름난 양조공업의 발상지 마산, 특히 몽고정 수류에 위치한 저희 몽고간장은 80여 년간(창업 1905년) 오로지 맛좋은 간장 만들기에 전념하여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몽고간장이라 이름짓고서 간장의 전통, 마산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저희 몽고식품은 장유제의 원조로서 서기 1905년 창업 이후 80여 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해 드리기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저의 제품이 세계에서도 식품위생 견열이 까다로운 유럽에서 시기 1990년 11월 12일 실시한 프랑스 무역지도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4회 국제유럽품평회에서 맛과 위생처리가 국제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주는 EUROPE AWARD(유럽품평)상을 수상한 것은 국내 장유업계 최초의 영광이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론 그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 받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당시 제품을 애용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가일층 국민보건 위생을 위해 전 시원은 학심하여 더욱 연구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제유럽품평회 인정서

제4회 국제 유럽 품평회 EUROPE AWARD(유럽품평)상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蒙古食品株式會社

MONG-GO FOODS CO., LTD

本社：馬山市 兹山洞 119 代表電話：(0551)46-2210

工場：昌原市 八龍洞 29-1 代表電話：(0551)96-2210

蒙古食品販賣株式會社

MONG-GO FOODS SELLING CO., LTD

本社：서울市 麻浦區 西橋洞 465-9 平和빌딩 2층 전관

代表電話：326-1212



1905

92년도 예산 總1억1,095만원

54차 理事會 會則 12·14·16조 개정案 통과



▲54차 정기이사회에서 本會 鄭在哲회장이 関丙天총장으로부터 축하패를 수여받고 있다.

本會 제54차「定期理事會」가 지난 6월26일 오후6시 소피텔 앤 버서더 호텔 2층 서궁에서 鄭在哲(52정치) 회장, 関丙天(58대원) 모교총장, 文泰植(49사학)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이사동 임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92년도 예산안 1억1,095만원을 승인했다.

또한 제14대 국회의원당선자 축하모임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당선

자 16명에게 축하패를 수여했으며 정기이사회의 안건으로 경과보고와 주요 업무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가 있었고 9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마지막으로 53차 정기이사회에 건의되었던 회칙개정안 통과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문화 張秀正(67임학)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는 鄭在哲(52정치), 黃明秀(53정치), 樓魯甲(53경제)

동문을 비롯한 제14대 국회의원당선동문 16명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상보 5면)

朴珪植의원도 同門

國會議員 同門 총 17명



한편 지난 14대 동선에서 16명의 동문이 단선되었고 보도(본보 156號)가 나갔으나 뒤늦게 부천 남구에서 당선된 朴珪植의원(시진)이 동문임에 밝혀져 국회의원동문은 지난 13대와 같은 총 17명이 되었다.

朴珪植동문은 66년 묘교 경

제학과 출신으로 한진그룹 종

합감사실장과 한국경제일보

논설위원, 12대 국회의원과 국

회경과위 간사, 재무위 위원,

여결특위 위원등을 역임한 2

면의원이다.

문화 張秀正(67임학) 사무국

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

사회는 鄭在哲(52정치), 黃明

秀(53정치), 樓魯甲(53경제)

각급단위 支部支會 모임 活潑

축하연·야유회·同門會報 창간 등

부임동문 축하모임

이종범·김진선 동문

춘천지부동문회(회장=김내식·67정의)는 오는 8월5일 춘천시내 삼천리호텔에서 강원경찰청으로 새로 부임한 이종범(63법학, 前경찰청공보관)동문과 강원도청 기획실장으로 부임한 김진선(74행정, 前 강릉시장)동문의 축하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야유회 개최

도봉구동문회(회장=심춘섭·61정치)는 지난 7월25일 오후5시 북한산 도봉유원지내 「대동강」음식점에서 동문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야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7일 춘천총회와 4·19 동민노임에 이어 3번째로 모임을 갖는 도봉구동문회는 이 날 모임에서 동문회발전과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보 创刊

정보산업대학원동창회(회장=박충일·62법학)는 지난 6월1일자로 동문회보 「情報產業大學院報」을 창간했다.

타블로이드 8면으로 구성돼 있는 「情報產業大學院報」는 박충일동창회장과 모교 민병천총장, 김태홍(정보산업대학원 초대학감, 前대학원장) 등

문의 창간축사와 인사명대학원장과의 대담, 시사논평, 동문칼럼, 동문동정동동문회와 동문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실고 있다.

南태평양지역 同門모여

남태평양지역(한·사이판)동문회(회장=林載吉·52정계)의 회장 임재무씨는 지난 7월초순 귀국하면서 본회에 내방, 동문회 소식을 전해왔다.

한·사이판을 비롯한 남태평양지역동문 16명은 지난 6월15일 부부동반 모임을 개최



▲경찰행정학과 동문회에서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警行科동문회 奨學金 전달

경찰행정학과동문회(회장=

金聖洙·68경행)는 지난 5월

28일 모교 사회과학대학장실

에서 91학년도 2학기와 92학

년도 1기 경찰행정학과 동문

회장학금 수요식을 가졌다.

경찰행정학과 재학생 4명에

게 각각 30만원씩을 전달한

이번전달식은 동문회 사정으

로 91년도 2학기 장학금을 함께 수여한 것이다.

한편, 경행과 12期 동기모

임인 동지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 한강고수부지에서 동지

회기록동반 제육대회를 동문

40여명이 참석한 기운에 개최

했다.

法大동창회 國會議員 당선자 祝賀

법과대학총동창회(회장=林

德圭·68법학)는 지난 7월10

일 오후2시 서울신문사 외신

기자클럽에서 법과대학 출신으

로 14개국회의원에 당선된 5

명동문 축하모임과 노동부장

관으로 취임한 李衍澤(61법

학)동문의 축하모임을 열고

법학과의 계속적인 발전과 동

문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법학과 65년 졸업 동

기회(회장=金益相·65법학)에

서도 지난 6월5일 오후7시 서

울프리자호텔 4층 난초실에서

65년 졸업동기 중 2명의 제14

대 국회의원 당선동문의 축하

모임을 가졌다.

ROTC 5기회(회장=김승유·67정의)는 지난 6월25일 오

후7시 만강홍에서 금년도 두

번째 동문모임을 개최, 그동

안 동문들간의 소식을 교환하

며 동기회발전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다.

教院 미술과 同門

'92 여름 象院展

교육대학원 미술학과동창회(회장=朴榮在)는 지난 7월23일부터 29일까지 종로 백악미술관에서 '92여름 象院展'을 개최했다.

8번째로 마련한 象院展은

象院展同門들이 마련한 것으로

로서 동문들을 미술동호인으

로서 전복을 다지며 참다운

미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회 伽山賞 授賞

李智 寶同門

李智冠동문(69대원·前모교

총장)은 지난 6월6일 자신의

설립한 불교연구기관인 伽山

불교문화진흥원이 제정한 伽

山賞 제2회 수상자인 李智

교교수등 4名에게 시상했

고하고 뉘시대회를 열었다.

주로 진설집과 수퍼나겟등

에 종사하고 있는 이 지역 동

문들은 매달 한번씩 모임을

갖고 동문상호간 우의를 돈독

히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

다.



앞서가는

相扶相助하며 結束다진다

동국대학교 國民銀行 동문회—東民會

있는 동국인은 정확히 파악하여 140명。

지점장급 9명, 검사역, 기술역, 조사역 등이 6명, 차장·과장급이 14명, 대리급이 54명 기타 행원등으로同行의 하부구조를 틈틈히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東民會가 최초로 탄생한 때는 지난 75년 4월 2일인데 당시 대선배인 조한성(49전문) 동문이 신년초에 自宅으로 行內 동문을 초대, 하례식을 치르면서 동민회 발족에 뜻을 모으게 된 것이 시초이다.

46명의 동문이 東國이라는 동질성 하나로 모여 오늘까지 이끌어오면서 東民會는 140명의 회원과 2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초창기에 東民會를 기준 조

한성(49전문) 김천수(57경제·국민신용카드 대표이사) 김두표(57농·국민금융고이사) 설탁(국민리스 감사) 이중무(59

또한 전통적으로 相扶相助하는 기풍을 더욱 강화해 나가 동문간의 결속은 물론 직장내에서도 인정받는 行員들



▲김재웅 회장



▲김종욱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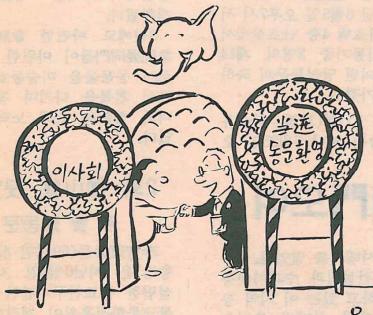
▲김용선 회계



▲사진은 同會의 90년 정기총회 모습

이 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東友漫評 鄭雲耕



화합 속의 도약

법·부국금융 대표이사) 정재배(60경제·한성금고 이사) 이재녕(62경제·국민신용카드 이사) 최준호(·전남금고 대표 이사) 동문들은 지금은 거의나 퇴직하여 子회사나 여타금융계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同會의 1세대로 본다면 현재會長인 정재웅(71경영·동우천지점장), 부회장인 오정희(72경영·동답출장소장) 이영우(70경영·충무지점장) 동문들은 2세대로서 同會의 실질적인 내실과 도약을 다지는 세대이다.

창립초기 同會발족시부터 확립된 직급별 차등 회비의 원수남제를 통해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충동창회와 모교지원사업에 전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정재웅회장은 강조 한다.

基金 활용 支援事業 구상

後輩의 入行 언제나 환영

현재 회비의 수납은 부점장급이상 1만원, 죠·피장급이상 6천원, 대리급이상 5천원, 행원 4천원으로 매월 일괄 수령한 후 기금으로 적립시켜 나가고 있다.

同會의 同門愛는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가 있다.

빌족초기인 77년에 개교 70주년 장학기금과 79년 모교 야구부 후원금을 지원했고 87년 동창회관 건립기금으로 3백만원을 그리고 지난 5월

백상빌딩 입주협찬금(전환권 공사대금)으로 1백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다.

또한 同會內의 상조내역을 보면 회원이 결혼과, 자녀결혼시 각 10만원, 본인 사망시 30만원, 지게기죽 사망 20만원, 회원의 퇴직시 금5돈등을 지급하면서도 동문애를 기꾸어 가고 있다.

이처럼 끈끈한 동질의식을 가진 同會회원들은 많은 바업부에 있어서도 전문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여 어디서나『명실공히 力量 있는 직원은 東大출신』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同會의 회계인 김용신동문(81행정)은 보다 원활한 운영과 함께『신입행원 환영회, 정기총회의 정기적 모임은 물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마련에 노력하겠다.』면서 어울려 많은 후배들이 국민은행에 입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모교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동국인을 시상할 계획까지 갖춘 同會의 가장 큰 핸디캡은 전체적으로 부장급 선배不在, 전국각지에 흩어진 동문들의 찾은 이동통으로 쉽사리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다는 점이다.

曾발족 1세대 이후 2세대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기까지의 울타리가 될 선배층의 열세(?)로 다소 침체된 듯한 느낌이지만 그동안 보여온 同會의 同門愛로 불파 本會의 2백여 支會中 가장 앞서가는 同會에 성장할 것으로 믿어본다.

（東民會 임원）
회장=정재웅(71경영·동우천지점장)

부회장=오정희(72경영·동답출장소장), 이영우(70경영·충무지점장)
總務=김종욱(72경영·중소기업부과장)

會計=김용신(81행정·本店여신부대리)
도움말 주신분=정재8, 김종욱, 김용신동문

大韓民國 예술원賞 受賞

연극영화무용부문 李根三동문



▲李根三
(52영문·서강대학교)동문이 제37회 대한민국 예술원상 연극·영화·무용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勞動部長官에 李衍澤동문

업무추진력 뛰어난 관료출신



▲李衍澤
(61법학·본회부회장)동문이 지난달 말경 노동부장관에 임명되었다. 본회부회장으로 남다른同門愛를 보여온 李동문은 지난 65

년 총리실행정조정관으로官界에 입문한 이래 23년간 총리실에서 근무했고 국무총리실조정관·청와대 정부수석, 총무처장관등을 역임했으며 타고난 근면성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난 외유내강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J지구, FY92-93지역 부총재로 추대되었다.

夷東동문은 동국그로장학사저택주진위원회회장, 철학과동문회부회장, 영우구락부회장등을 겸임하고 있으며 뛰어난 활동력으로 모교발전에 힘써 왔다.

서민聯 사무실開所

鄭基用동문



▲鄭基用
(62정치·본회이사·한국서민연합회장·우정진흥사업회감사)동문은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뒤 아세아빌딩 402호에 서민연합회사무실을 열었다.

鄭동문은 워싱턴한민신보사장, 프레스센터전문위원, 민자당국체연구소·상근연구위원등

을 두루 거친 경력이 있다.

경찰大學長 就任

金鍾一동문



▲金鍾一
(58법학·본회이사)동문은 최근 경찰경무국장에서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金동문은 서울시경정보과장, 치안본부 율령기획과장, 서울시경제4부장, 치안본부 정보1부장, 충남경찰국장, 치안본부 4차장등을 두루 거친 실력파.

LIONS 地域副總裁 襄鍾大동문



▲襄鍾大
(62철학·본회이사·영우회중앙연합회장)동문이 국제라이온스협회 309

서울 세종문화회관뒤 아세아빌딩 402호에 서민연합회사무실을 열었다.

鄭동문은 워싱턴한민신보사장, 프레스센터전문위원, 민자당국체연구소·상근연구위원등

을 두루 거친 경력이 있다.

會費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指導委員 會費

(단위:만원)

▲김혜범(73행원)=20

▲김준용(53경제)=20

▲박현성(75행석)=20

▲정명수(53경제)=20

計=80만원

◇常務理事 會費

(단위:만원)

▲박계상(77행원)=20

▲이종우(59법학)=20

▲박도근(65상학)=20

▲이철성(67농학)=20

▲인종운(59영문)=20

▲박충완(59경제)=20

▲김기천(81행원)=20

▲김동길(61경제)=20

▲문영일(58정의)=20

▲정인아(60화학)=20

▲김천수(57경제)=20

▲안철환(52경제)=20

▲박은규(61정의)=20

▲이종훈(59법학)=20

▲한상근(62경제)=20

▲정병립(86행원)=20

▲정달영(65경제)=20

▲김승우(67정의)=20

▲김승우(67정의)=20

▲김현표(55정치)=7

▲김현권(71경제)=7

▲조현수(64농경)=7

▲이준립(62경제)=7

▲정기종(64불교)=7

▲이홍기(64불교)=7

▲이홍기(55정치)=7

▲김철구(86정원)=7

▲정대진(63법학)=7

▲이명용(64정의)=7

▲김홍기(61정의)=7

▲이영창(58법학)=7

▲정석승(63상학)=7

▲김정환(60국문)=7

▲임경우(56경계)=7

▲조희영(63경영)=7

▲김종성(48해진)=7

▲서수일(71법학)=7

▲장명근(64법학)=7

▲임수일(60국문)=7

▲김재홍(60경제)=7

▲양재홍(77경제)=7

▲최무열(63정치)=7

▲허경무(64경제)=7

▲김대동(81행원)=7

▲조희재(67식공)=7

▲이서현(71철학)=7

▲김복렬(62정의)=7

▲최명재(61영문)=7

▲이인숙(88상무)=7

▲김대웅(67경제)=7

▲김봉준(65정의)=7

▲김관성(48불교)=7

▲노주희(82농학)=10

▲이경주(58경제)=7

▲임천준(54국문)=7

▲김재구(61경제)=7

▲김재진(63경계)=7

량이다.

프로울스타戰 MVP

金城漢

동문

▲金城漢

(82체교)동

문은 지난 6

월 21일 잠

실구장서 열

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서 출장11년만에

MVP에 뽑

혔다.

정규리그에서

팔꿈치수술후

유증으로 제기량을

펼치지 못

한 김동문은

이날 역전3점홈

런을 포함,

3안타의 맹타를

휘둘러

서군이 승리하는데

결

정적 공헌을

했다.

너와 새나을과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장충단공원에서 이 지역 노인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觀光大總長

金一潤

(92대원·12

·13대국회의원)

동문은

14일 경북경주시 소재

한국관광대

학교의 초대총장으로 취임했다.

김동문은 경주전문대학 신라고등학교에 이어 지난 87년 한국관광대학을 설립하여 이

▲金一潤
(92대원·12·13대국회의원)
동문은
14일 경북경주시 소재
한국관광대학 신임총장으로 취임했다.

사장을 맡아왔다.

1軍사령관 就任

趙南豐

▲趙南豐(90행원·교육사령관)

동문이 최근 1군사령관에

취임했다.

榮進轉補

《경찰계》

▲南澤善(57법학)=충북

전천서장

▲裴正文(57경제)=인천청

수사과장

▲具教贊(64법학)=경북청

보안과장

▲裊熙善(65법학)=서울

강동서장

▲金宇佐(70경행)=서울청

경찰과장

▲金成根(70경행)=부산청

경비과장

▲金明洙(70행정)=경북청

경비과장

▲崔廣賢(71경행)=충남

강경서장

▲金瑞榮(73경행)=서울

서초서장

▲朴禹信(경행)=충남 예

산서장

▲金加溶(83행원)=서울

성동서장

▲尹元錦(83행원)=서울청

경찰서장

▲南澤善(57법학)=

▲남택선(57법학)=

▲양윤기(70상학)=

▲김서운(73경행)=

▲김동익(65식공)=

▲이경평(57영문)=

▲이하영(58법학)=

▲이현재(58정치)=

▲이현천(75정원)=

▲이현숙(58정치)=

▲이현숙(65정의)=

▲이경호(65정의)=

▲이경호(6

교통판리과장

- ▲鄭樂鎮(83행원)=전남 순천시장
- ▲權允采(84행원)=서울청 면허과장
- ▲柳順樹(84행원)=경찰청 외사2과장
- ▲金成培(86행원)=경남청 보안과장
- ▲柳炳煥(87행원)=경찰청 기획관리실

<철도청>

- ▲安啓鎮(59·사학)=철도청 경리국 재산과장에서 철도청 중앙보급사무소장
- ▲李相元(60·영문)=철도청 경리국물운계획과장에서 철도청 청경리국물자운영실장
- ▲李仁復(60·법학)=서울지방철도청인천역장에서 한국고속철도공사감사실장
- ▲洪淳浩(60·법학)=서울지방철도청인천역장에서 서울지방철도청부역장에서 한국고속철도공사
- ▲李志順(61·수학)=서울지방철도청서울역부역장에서 한국고속철도공사
- ▲李成範(61·국문)=서울지방철도청성남역장에서 서울지방철도청부역장
- ▲李弼萬(62·경제)=철도청 총무과장에서 서울지방철도청 관리국장
- ▲卞在洙(66·법학)=철도청 공안담당관서 공안담당관에서 철도청 공안담당관

(담배인삼공사)

- ▲姜周相(61·경제)=대구제조장장
- ▲趙源和(69·행원)=본사 인력관리국장

<금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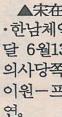
- ▲朴泳周(63·정의)=강원은행 견시부겸사역에서 태백지점장으로
- ▲朴南圭(69·행정·본회이사)=한국상업은행 삼일로지점 관리부 부부장에서 남역삼동지점장으로
- ▲金東珉(71·법학)=대우증권 영업2부부장에서 목동지점장으로
- ▲安國承(60·경제)=서울신탕은행 본점 서부부장에서 서은리스 감사로
- ▲尹興鉉(64·경영·본회이사)=서울신탕은행 양재동 지점장에서 내자동 지점장으로
- ▲徐秀一(71·법학)=서울신탕은행 종합기획부 부부장으로 역임

<기타>

- ▲朴世觀(62·법학)=농어촌 진흥공사 춘천군지부장
- ▲姜真照(65·경영)=성업공사 총무부 관리역으로



回甲



結婚

- ▲宋在晚(69·수학·본회이사)=한남제인 서울본부장)=지난 달 6월 13일 서울 여의도국회 의사당쪽 중소기업회관 앞 세 이원-프라자에서 모친 고희연.

- ▲姜昌淳(60·불교)=지난 5 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무역센터 공항터미널 3층 컨벤션센터에서 아들 봉래군 결혼.

- ▲嚴泰根(63·불교·본회이사)=지난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천주교 교회에서 장녀 성은양 결혼.

- ▲尹富成(63·생물·본회이사)=동국大상대교=지난 6월 13 일 1시 20분 나윤예식장 4층 특실에서 장녀 우동주 결혼.

- ▲千東椿(63·정치·조양상사 대교)=지난 5월 20일 오후 1시 30분 금관예식장 3층 특실에서 아우 동주군 결혼.

- ▲朴世鎔(81·정경)=지난 5 월 19일 2시 동인교회에서 장남 장호군 결혼.

- ▲梁鉉仲(91·행원)=지난 5 월 8일 오후 1시 삼목회관 4층 예식부에서 장남 우석군 결혼.



計音

- ▲文英逸(58·정의·한국전력 부사장)=빙부상 5월 31일 상오 2시 서울한일병원

- ▲李永潤(58·법학·본회이사·교회의회)=빙부상 6월 10일 상오 4시 30분 서울고려병원

- ▲李蓮永(70·농학·본회이사·신용보증기금포장크로트 사무소장)=모교상 6월 29일 낮 12시 충남부여군 임천면 담산리 낙당

- ▲金奇榮(71·불교·대구경찰청 강력과장)=모친상 6월 17 일 상오 11시 30분

詩人은 항상 人生을 탐구

리시아 留學가는 徐廷柱동문

리시아문학공부와 문인교류 등을 위해 1년간 리시아유학길에 오른 徐廷柱(35중불)동문.

우선 이번여행의 특별한 배경에 대해 문자 徐동문은『특별한 이유를 찾기 전에 없지요, 시인이란 호기심과 탐구하는 연구적태도를 가지고 인생의 매력을 체험을 통해 항상 계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이유로 할 수 있죠』라고 말한다.

또한 이번 행선지는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를 거쳐 코카시스지방까지 두루 거치면

클로즈업

서 우랄알타이어족에 대해 공부도 하고 중앙아시아의 문화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徐동문은 우랄알타이어족은 바로 우리나라 언어의 뿌리이며, 또한 산마니족의 발달은 중앙아시아지역이므로 이곳들을 돌아보며 학문적인 공부와 더불어 시작해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동부인하는 이유는『아내가 얼마전 큰수술을 했는데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공기가 맑기로 유명한 코카시스지방에서 머물면서 요양을 할 계획때문』이라고 밝힌다.

동국이 문학으로서 이름을 날릴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견해를 물자『뭐니뭐니해도 동국은 불교적 색채가 짙은데 바로「불교」라는 것은 문학적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큽니다. 자세히 보면 불교의 표현은 바로 문학적 표현이죠. 따라서 불교를 공부했던 인물들이나 고승들은 자연스럽게 문학가로 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라며 동국문학은 바로 86년이라는 깊은 불교의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특별히 할말이 있으면 보다 무슨일, 어떤 공부를 하든지 자신의 진정분야에서 제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체를 당부한다.』면서 현재 불교학도 일본에게 뒤지고 있는 실정인데 후학들의 노력이 많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부탁한다.

學生과 함께한 農活總長

農活예찬론 펴는 曹武成동문



대해 토론하는 진지함동을 통해 曹동문은 많은 감동을 받은 후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학생들과 더불어 농촌에서 피사리도하고 농민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농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농활총장」이 된 것이다.

또한, 지난 3년간 학생들과 함께 농활을 해온 전북장수군 일대에서는 학생들에게 지갑을 벌여주는 曹동문의 아낌없는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소문이 나기도 하다.

『농활』은 일부 학생들의 성급한 정치활동등으로 부분적

인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생과 농민사이에 뜨거운 교감이 오가는 「살아 있는 인간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는 曹동문의 말에서 「농활총장」의 신념을 다시한 번 느낄 수 있었다.

都成漢醫院

代表 李峻豪
(舊永根)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17번지

Tel 762-6454
763-3977
766-7797
Fax 743-2893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 이사 홍평우 (70 경영)

■ 西独 보쉬 純正品
연료節減

■ 엔진 출력 증가/수명 연장

■ 엑스터너

현대·대우·기아·전기·전기차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Quartz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録·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0997

母校愛 발휘는

1萬원의 年會費 납부에서

동문 여러분이 내주시는 낭회비 1만원이 奖學과 本會事業의 밀접성이 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친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비 내역-

- | | |
|---------------|---------------|
| ○일반회비... 1만원 | ○이사회비... 7만원 |
| ○감사... 20만원 | ○상무이사... 20만원 |
| ○지도위원... 20만원 | ○부회장... 50만원 |
| ○회장... 100만원 | ○회장... 100만원 |

보내실 곳: 각은행 지로번호 7500891

우편대체 01238-31-025667

동국대학교 總同窓會 事務局

“고수의 금융상품 안내”

□ 시중 실제금리의 증개어음!

□ 자유 CP!

□ 시중 실제금리 반영 CD!

□ 입출금이 자유로운 고수의 CMA

확실한 투자 행복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 문화·영화(나라 대표: 771-9000) 허상실 777-1449

* 경남경찰청사무소 신설(상파로 501) 759-5001

東國人을 위한

그랜저 3.0 2.4 2.0
NEW소나타 2.0 1.8
엘란트라 1.6 1.5

신차 및 중고차 매매, 이전전담!!

TEL:(주) 274-3103~8

(야) 288-4603 FAX:268-4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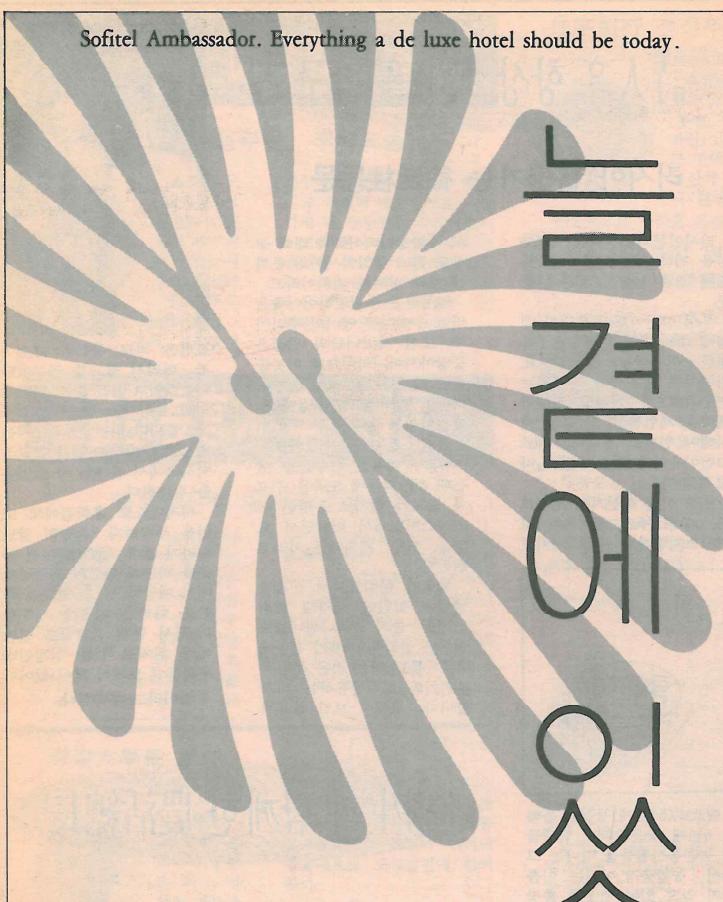
HD 現代自動車

퇴계로영업소

영업차장

柳在善(70농경·ROTC8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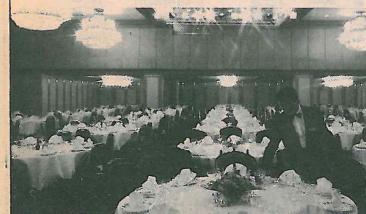
Sofitel Ambassador. Everything a de luxe hotel should be today.



섬세한 정성의 오렌 전통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세련된 감각이 어우러져

더욱 멋스럽고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54 ☎ 275-1101
객실예약 270-3111, 식음료부 270-3280, 판촉부 270-3150

늘 결 트 에 있 스 니 다



▲ 모교는 지난 6월12일, 원공원 불상증수식을 가졌다.
평등으로 된 모교의 상징인 불상은 지난해 말부터 공사에 착공, 동문과 재학생들이 기금모금운동도 벌인바 있다.

美 하와이大와 자매결연

교수 학생 문화교류키로

母校가 지난 7월10일 美하
와이大學과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7월9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閔丙天보교총
장은 첫기착지인 美하와이에
서 하와이大學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 교수학생동 문
화교류에 협의하고 매년 국제
불교학술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자매결연대학인 이스
턴워싱턴大學과는 교환교수1
명, 장학생명을 교환과전기
로 했다.

모교는 지난2월 日本 龍谷
대학과 자매결연을 하는등 5

개국 총14개大學과 자매결연
을 맺게되었다.

吳綠園이사장 渡日

도쿄 吳綠園(73행운)재단이
사장은 최근 일본을 방문 일
본의 동국대후원회결성 및 산
하 동국전자제산원의 자매학
교인 일본 동북전자제산기전
문화교와 기자체지원 협력방
안을 논의했다.

吳董문은 지난 2월 중순경
에 日本 大正大学로부터 韓·日
양국의 문화교류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문화학
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母校 이시영교수 海外派遣

92년도 대학교수 국비 해외
파견 연구지원계획이 새롭게
설정됐다.

모교학술부 발표에 따르면
종전에는 각대학별로 배정된
소정의 교수를 총·학장이 교
육부에 추천하면 파견연구가
가능한 일반 연구파견전형 뿐
이었으나 올해부터 각 대학
총·학장이 추천한 교수중에서
교육부가 경쟁선발하는 형식
의 공동연구파견방식을 추가
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모교의 92년 국비
해외파견 연구교수는 경주肯
퍼스의 이시영(경제학)교수이
며, 이교수의 최근 연구논문
으로는 「측정오차와 회귀계수
ベ터의 선형변환에 관한 연
구」 등이 있다.

高校文學콩쿠르 盛了

제30회 모교동대신문사주최
전국 고교생문학콩쿠르가 1차
예선에 입선한 남녀고교생 1
백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부
수필부, 소설부로 나뉘어 지난
5월23일 동국관(L301)을
중심으로 한 교내일원에서 열
렸다.

이날행사는 오전 10시30분
김용정(철학)부총장의 치사와
신문사주간 최순열(국교)교수
의 환영인사로 개회식을 가진

뒤 2시간여동안 해당작품창작
을 한후 오후4시부터 심사평
및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운문부 장원
에 강종현(서령고3)군이, 수
필부문에는 김영임(김천여
고) 양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소설부는 정원없이 흥명숙(강
릉여고3) 양이 기작을 수상했다.

佛文研 3차 학술회의

모교 불교문화학자연구회
(회장=홍기삼·국문, 모교 국
문과교수)는 지난 6월5일 오
전11시부터 동국관(L306)에
서 제3차 학술회의를 개최했
다.

「현대시와 선」이라는 주제
로 발표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했던 이번 학술회의 발표
자는 이형기(56불교, 모교국
문과교수)-현대시와 선시,-
최순열(72국문, 모교국교과교
수)-선시와 교시, 송희목(86
국문, 모교국문학강사)-최근
시단의 선시적경향, 한만수
(84국문, 모교국문학강사)-
고온론, 윤재웅(85국문, 모교
국문학강사)-황동규론, 박혜
경(83국문, 모교국문학강사)
-최승호론 이었으며 토론 참
가자로는 최동호(고대교
수), 박상천(한양대 교수), 윤
석성(인문대 국문학교수)등으
로서 진행되었다.

나의學答時節

張漢基 교수

고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이를테면 국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명한 교수들에 의해 이른 날 국문과로 물려들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나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년의 구별이 없었던 것은 전쟁 중 나이가 많은 학생과 나이 어린 학생들이 한데 섞여 있었고 또한 이들의 지적 수준도 같지가 않았다. 이를테면 일학년 학생일지도 고학년 이상의 지적 수준과 소양을 겸비한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 상급반 학생일지도 이에 미치지 못한 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대학은 오늘날과 같이 전공과 학령에 있지 않은 시대였던 것 같다. 우선 8·15 이후 세로 탄생된 조국의 지성집단으로서 우리의 역사, 경제, 철학, 법률, 문학도 알아야하고 그것을 배워주는 곳으로서 우리는 대학을 선택하였으며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대학을 택한 것

- ◇31년 출생
- ◇55년 모교 국문과 추
- ◇74년 모교 문학박사
- ◇58년~현재 모교연영과 교수, 현 예술대학장

다.
나는 솔직히 말해 졸업후 교수가 되리란 생각은 아예 갖지도 않았었다. 그래서 국문학과 학생이니까 세계문학과 예술시적인 좀더 가까이 했을지 모르나 졸업할때 까지도 국문학도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같은 것도 갖지 않았으며 또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다.

독서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서는 마구잡이로 읽어나갔다. 다만 대학생으로서의 풍부한 지식과 '남한' 이를 축적하고 향유하는 데만 있었다. 나의 현재 전공은 그때에는 있지도 않았던 연극학이 이제는 본업이 되었지만 이 분야의 전공 선택도 나는 환도후 대학원에 들어가 비로소 정해

름같이 모여든 학생들을 살펴 더욱 그 명성과 인기를 감지 하신듯 열광적인 사자후를 토히하고 미처 오늘날 긴이식 포장마차에서나 쓰는 외나무 의자라도 못자지한 우리들은 콩나무 시루같은 강의실 옆과



▲50년대 말의 졸업식 광경.

우리나라에는 많은 세대들이 있다. 4·19세대, 6·3세대, 그리고 6·29세대 등 그 종류들이 많다.

나는 6·25전쟁 중에 대학을 나셨으니 굳이 세대를 따지자면 6·25세대다. 때문에 나의 학창시절은 대부분 전쟁 와중에서 포화의 연기와 총성을 들으면서 지냈다.

당시 학교는 피난지 부산에서 다시 문을 열었고 배움에 깊은 우려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모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동국대학교 교수진의 이름을 보고 모여들어 좁은 교정과 강의실은 발들여 놓을 틈도 없었다.

그때는 솔직히 과 구별도 없었다. 앞으로 정치를 지망해도 사업을 지망하더라도 반드시 성지파를 가야하고 법과나 경제학파를 나아야 하는 법도 없었다.

그때만 하여도 해방된지 수년에 불과했고 과마다 학문마다 아직 틀이 잡히기 전이었다. 국문학을 지망한 사람들도 우선 이 민족의 글과 언어를 바로 알기 위하여 몰려왔고 그것이 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일익이 된다고 믿었었다.

그래서 정치·경제·법을 알

콩나물 시루같은 講議室, 학업열의 후끈

母校에서 보낸 30여년은 보람의 時間

解放後…국가관 정립위해 國學 열기 높아

온 아니었다.

따라서 유명한 교수, 유명한 강좌에는 과를 불문하고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기 마련이었다. 나도 국문학과에 입학은 했으나 불교학의 김동화 교수 철학의 박종중, 역사의 화의돈, 경제학의 최현진·신태환, 법률의 고승재·선생님 등, 그 화려하고 재생한 분들의 강의를 듣기도 했다.

강단에 서신 선생님들은 구

뒤 가장자리에 붙어서 그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빼놓지 않고 필기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실로 오늘의 행복한 시대의 학생들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노트에 옮겨진 말씀들은 조사하나 가감 할 것 없이 그대로 훌륭한 문장이 쳐되어 뛰어나았다.

선생님들의 비상하신 기억력과 그 박식하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열정 또한 대단하였다.

물론 그 전 학생시절 중·고·대학을 거치면서 몇편의 회고록을 쓴 적도 있고 중·고 시절부터 학생연극 운동에 가담하고 대학에 와서도 동국연극의 이름을 떨친 때도 있었다. 4학년 때인가 전국남녀대학 연극경연대회에서 내가 쓴 극본 '山桜'이 최고의 연극상을 수상하자 나는 아버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고가의 황금 회장증제를 팔아 이를 연극부원들의 회식비에 충당한 적도 있었다.

어무른 이런 저런 일연으로 해서 지금 내가 우리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어느덧 30여 성장을 보내게 되었으나, 우리 동국 연극영화의 전통은 해방 직후부터 조성화, 유현목 등 그 뿐리는 오래되었다.

대한민국 수립이래 제1회, 2회, 3회, 4회 연극 경연에서는 모든 시상 부문을 동국대학교에서 휩쓸었고,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영화 작품이었던 美賢稿의 「海風」은 누리나도 유명했다.

이런 연유로하여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모교인 동국대학교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학과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비록 그 정원은 타대학의 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지만 오늘날 실제 우리나라의 TV와 영화, 방송제작의 혁성과 같은 배우 연기자들은 모두 모교의 출신들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활동하고 이끌어 주는 출연가, 제작진을 합하면 그 숫자는 타대학에 비해 단연 압도적이다. 또한, 그들의 명성은 이미 세상에서 뛰어난 아세계 영화 연극제에서도 쇄고의 주연상과 연기상을 수상해 오고 있다.

학문도 교육도 그 시대의 흐름과 육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고도한 사업사회와 기계문명에 지치고 군사적이나 이데올로기 대신 문화가 국력의 한 요소가 되는 21세기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다가서는 지금, 그래도 잠시나마 인간을 쉬게하고 그 영혼을 달래며 내일을 충전시켜 주는 예술은 이 지구상에서는 둘도 없는 복음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30여년동안 모교의 연극영화과에서 그 시작과 더불어 이날까지 이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람으로서 그리고 한편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오늘을 즐겁게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財團法人 大韓佛教觀音宗

서울·종로구 숭인동 178-3 TEL:(02)763-3109, 3345 FAX:(02)763-5851

院長	教育院	護法院	副議長	宗會	監察部長	社會部長	財務部長	教務部長	總務部長	院長	總務院	元老院	司事室長	正金性哲	金大天雄
金芮	鄭申	鄭全	柳金	黃金	李李					元老院	總務院	司事室長	正金性哲	金大天雄	
東華	春無法	瞳法	鏡法	智泓						元老院	總務院	司事室長	正金性哲	金大天雄	
靈頂	潭本輪	華輪	徹明攝	波雄						元老院	總務院	司事室長	正金性哲	金大天雄	



詩集「 풍경화」

▲李京淳(60國文·한국문인협회회원)동문이 최근 시집『풍경화』를 출간했다.

59년 이상 김광섭선생으로 부터 「자유문학」을 통해서 추천받은 이후로 꾸준히 작품활동을 한 李동문은 여래까지誌·紙에 발표했던 시들을 한데 모아 이번 시집으로 내보낸다.

〈너른느 TI〉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

▲順順範(61정치·본회이사·국회의원)동문이 「소나무동포 여러분 자갈시민들으시오」를 개정해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로 신판을 내놓았다.

신동문은 이 책이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과 직장인 그리고 경영인 모두에게 성공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모티브」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간시대刊〉

「정신적 분출구는…」
刊

▲시조시인 朴相文(66국문)동문이 최근 수상집 「정신적 분출구는 어디에서 찾나」를 발간했다.

이책은 그동안朴동문이 오랫동안 월간잡지를 비롯하여 여기저기에서 발표한 것들과 동인지동에 이르기까지 발표한 소품들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장르에 구애 없이 한데 묶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철학적인 것들에 대해 건네를 꺼려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과정과 운영

▲朴相文(74행정·국회사무총장)동문은 최근 의회정치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우리국회의 국정실의 기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국회의 입법과정과 운영」을 저술, 발간했다.

朴동문은 국회내에서 부드러운 성격과 친절한 실무형이라는 평을 받으며 국회국방전문위원, 입법차장등을 역임했단다.

〈6面에서 계속〉

- ▲안병관(81통계)=1
- ▲이옥동(87영문)=1
- ▲조영식(74행정)=1
- ▲김희찬(64상학)=1
- ▲윤증필(87사회)=1
- ▲정재달(64경영)=1
- ▲김보정(56경제)=1
- ▲신재석(57국문)=1
- ▲김평수(82철학)=1
- ▲장인순(82경원)=2
- ▲김태환(64경영)=1
- ▲조태근(71경제)=1
- ▲이용기(69통계)=1
- ▲정병길(80경원)=1
- ▲이현우(86한의)=1
- ▲이호령(81통계)=1
- ▲박용희(86영문)=1
- ▲박대혁(63경제)=1
- ▲김영우(86경원)=1
- ▲임동규(84농학)=1
- ▲전근배(83행원)=1
- ▲안봉원(68경영)=2
- ▲최병설(75행정)=1
- ▲정구인(64국문)=1
- ▲오경일(87경영)=1
- ▲김영근(88교육)=1
- ▲정인숙(64경의)=1
- ▲주명우(65농학)=1
- ▲오하동(40불전)=1
- ▲김용탁(73행정)=1
- ▲권영근(88교육)=1
- ▲체국선(66국문)=1
- ▲현승찬(70경영)=1
- ▲정우진(59경제)=1
- ▲김태준(64상학)=1
- ▲이철구(76체육)=1
- ▲김정규(73토목)=1
- ▲김진희(70행원)=1
- ▲김영복(61법학)=1
- ▲김의중(56정의)=3

“올림픽 출전 東國人 건승 기원”

88서울의 영광 다시한번

○…가만히 앉아있어도 등줄기에 허줄로 한 땀이 흐르는 이 무더운 날씨에 조국과 東國의 명예를 위해 결연히 정도에 오른 東國인이 있다.

92비르센로나 올림픽 레슬링과 복싱에 출전하는 권덕룡, 김태우, 심상규, 김선학, 김세강동문이 그 주인공인데 지난 88서울올림픽에서 금2, 동2의 호성적으로 우리나라가 종합4위를 차지하는데 결청적 공헌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많은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

우리 東大고기리는 용맹정진이 그기상인바 바르셀로나의 하늘에 東國人의 기백을 펼치길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기습몽동한 美談

○…라면가게 아저씨에서 국회의원으로 평소 입지전적 인물로 널리 알려진 憲順範동문이 또다시 우리의 기습

을 풀을하게 하는 美談을 만들어내 화제.

憲동문은 자신의 지역구민인 이근, 박종섭君이 민성신부전증으로 시한부생명이란 사실을 알고 이들을 서울 강



東國同慶運動

다.

편안한 韓路되길

○…지난 7월 1일 본회 시무국에 귀한 손님이 찾아 왔는데...

52년도 경제학과 출신인 林栽漢동문이 그 주인공인데 林동문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펌·사이판등 南태평양지역동문회의 많은 소식을 알고 찾아 왔던 것입니다.

미주나 유럽에 비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南태평양지역동문회의 소식과 함께 本會의 활발한 교류를 다짐한 林동문의 東國시랑은 수천리 南태평양바다를 넘고 남을 것 같아 흐뭇하기만합니다.

오병훈동문께 감사

○…本會의 사무실동기를 마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법무사 오병훈(63법)동문이 수수료 30만원을 本會에 회사.

10萬 동문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南태평양에도 우리의 東國人 있다”

우수한 邦畫와 엄선된 外畫의 殿堂

邦畫 代表作

- 1966 유정
- 1970 사랑하는 마리아
- 1971 성옹 이순신
- 1972 의사 안중근
- 1975 삼포 가는길
- 1976 고교 알개
- 1977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 1982 애마부인
(현재 7편까지 제작)
- 1983 초대 받은 성웅들
- 1987 성리수일년
- 1988 고금소총
- 1992 특명 미녀군단

지난 65년 2월 국민정서 함양과 이땅의 영화산업 부흥을 목표로 설립된 연방영화사는 지난 25년여를 줄곧 우수한 방화와 엄선된 외화만을 고집해온 영화산업의 선구자입니다.

UIP직배와 한국영화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영화, 기억에 남는 영화로 영화 애호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外畫 代表作

- 1973 삼총사
- 1974 삼손과 데릴라
- 1975 미드나이트 카우보이
- 1977 씨스페리아
- 1979 취권
- 1981 13일의 금요일
- 1982 대부
- 1983 와이프 미스테리스
- 1986 위트니스
- 1989 라본느
- 1992 아메리카 소림



聯邦映画株式會社

Yun Bang Films Co., Ltd.

代表理事 崔 春 芝

서울特別市 江南區 清潭洞85-4 TEL. 543-5669-5670 FAX. 544-7478

“白象빌딩 入住를 祝賀하며 同窓會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선창산업주식회사
Sunchang Corporation

新 세 대 를 위 한 新 감 각 가 구



신세대는 신감각 – 선우드가구에는 신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세련미를 더해주는 심플한 라인의 신감각 디자인,
구석구석 편리한 기능이 돋보이는 신감각 내부공간,
모던한 감각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컬라까지
신세대 신부를 위해 태어난 신감각가구 – 선우드가구.
개성과 실속을 동시에 추구하는 신세대 신부는
선우드가구와 함께 신감각 행복을 향해 출발합니다.

sunWood
선우드가구

고수익 확정금리보장

예금안내

세금우대 복리정기예수금 •

3년간 세후
55.79%

3년간 세전
58.72%

100만원 예치시 단위: 원

예치기간	세 전 총수익률	세 후		
		총수익률	연수익률	수령액
3년	58.72%	55.79%	18.59%	1,557,921
2년	36.07%	34.26%	17.13%	1,342,691
1년6개월	24.13%	22.92%	15.28%	1,229,286
1년초과	15.50%	14.72%	14.72%	1,147,285

- 이자에 이자를 드립니다.
- 세금우대 금액 1인당 1천2백만원으로 확대 실시.

복리정기예수금 •

100만원 예치시 단위: 원

예치기간	세 전 총수익률	세 후		
		총수익률	연수익률	수령액
3년	58.72%	46.10%	15.36%	1,461,031
2년	36.07%	28.31%	14.15%	1,283,171
1년6개월	24.13%	18.94%	12.63%	1,189,476
1년초과	15.50%	12.17%	12.17%	1,121,715

금고업계 최초의 상장금고


진흥상호신용금고


상담전화 • 본점: 778-6611 (한국은행앞) 영동지점: 545-3653 (강남구청앞)